

 교육부				<h1>설명자료</h1> <p>2019. 11. 18(월) 배포</p>	
보도일	배포 즉시				
담당과	대학재정장학과	담당자	과 장	김태경 (☎ 044-203-6941)	
			사무관	성미정 (☎ 044-203-6973)	
			사무관	김재구 (☎ 044-203-6939)	

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설명 드립니다.

□ 언론사명 / 보도일시 : 동아일보(박재명, 김수연 기자) / 2019.11.18. (월)

□ 제목 : 교육부 “등록금 인상엔 대학적립금 감사”

<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>

□ 그간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에도 학생·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등록금 동결 정책은 유지가 필요합니다.

※ 새정부 중점추진 정책 1순위, 등록금 부담 경감이 '17년, 18년 연속 2년 선정(KEDI 여론조사)
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등록금은 국공립 6위(\$4,578), 사립대 4위(\$8,205) 수준('16년)

□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정책과 관련하여 교육부-대교협간 T/F를 구성·운영하여 고등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, 규제 완화를 통한 자체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.

○ 동시에, 대학이 국가 혁신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예산을 전년 대비 약 8천억원 증액 편성(정부안)하였고,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

※ 교육부 고등교육예산 : ('15) 9.3조원→('17) 9.7조원→('19) 10.5조 원→('20) 11.3조원

○ 앞으로도 대학들과 고등교육재정 확충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.

□ 언론에 보도된 등록금 인상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대학적립금 감사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음을 밝혀드립니다.